

에너지융합기술센터 충주에 개소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기술센터가 설립됐다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1월21일 충청북도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충주대학교에 에너지융합기술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.

에너지융합기술센터는 이후 충주기업도시로 옮겨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며 태양과 풍력에너지, 에너지 기기·저장 등 에너지 분야 실용화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.

충주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에 이어 에너지융합기술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충주가 충청북도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자금, 기술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나경환 한국생산기술원 원장은 “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 힘써 고효율 소재·부품 및 실용화기술 지원, 장비 국산화 등에 힘쓰겠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11/21>